

월요광장

성찰해야만 하는 4월



정유진
코리아컨설턴트 대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 흔든다/ 겨울은 따뜻했다/ 대지를 땅과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시 '황무지'는 미국 출신으로 영국에 귀화한 토마스 스타니스 엘리엇(T. S. Eliot)의 시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작품이다. '20세기 시 중 가장 중요한 시의 하나'라고 손꼽히는 찬사를 받으며 현대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며 인용하는 '4월'에 해당하는 시구는 434행이나 되는 장시 중 7행에 불과하다. 총 5부로 구성된 시는 당시 무미미한 일상을 보내며 살아야만 하는 현대인을 담은 1부 '죽은자의 매장'과 2부 '체스 게임', 그리고 종말론적인 풍경이 묘사된 3부 '불의 설교'와 무한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4부 '수사'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5부 '천둥이 한 말'에는 비를 끌고 오는 먹구름이 등장하면서 산스크리트어로 '평화'

를 의미하는 '산티 산티 산티(Shantih Shantih Shantih)'로 끝을 맺는다.

그는 역사, 신화, 종교, 사상은 물론 단테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미심장한 상징들을 시속에 숨겨놓았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시가 오늘날까지 자주 인용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어느 시대에도 통하는 보편타당성 때문일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시가 탄생한 시대는 암울하고 무기력한 사회였다. 그가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자신의 개인 사였음을 추후 술회하기도 했지만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후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사회에 만연한 우울 그리고 급속도로 현대화됨에 따른 정신적 피폐를 '황무지'로 형상화해 표현했다.

실제로 시가 발표된 1922년의 미국과 유럽은 전후 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가담한 미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은 변명을 거머쥔 반면에 유럽은 몰락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경기 호황을 누리는 듯했지만 전쟁에서 비롯된 충격과 공포의 경험 그리고 전쟁 사망자의 3배가 넘는 스페인 독감의 여파는 사회적 심리 상태를 히스테리로 몰고갔다. 이러한 불안의 징후는 미국에서 유럽에까지 끝없는 진보라는 당시 인류의 염원을 산산조각냈다.

엘리엇은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는 자기 자신과 현대인에게 자기 반성을 위해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유토피아가 아닌 황무

지를 보여주었다. 당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 속에 부활의 의미를 숨겨 놓았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인용을 통해 떠올리곤 했던 그의 시를 근래 자주 떠올렸다. 우리 사회가 전쟁 후의 휴양증을 앓는 것은 아니지만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사회적 변형을 누리며 코로나 역병을 앓고 나서 나아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미 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전반에 걸쳐 여가, 문화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세계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에 지정학적 위기 심화 가능성으로 지금의 경제적 변화가 전과 다르게 회복하거나 성장하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기후위기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놓인 셈이다. 이런 시국에 해결안을 제시한다며 내놓는 총선과 관련한 공약들은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당장 국가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표나 얻어보자는 내용이다.

꽃피는 4월, 100년도 더 된 오래 전 시가 더욱 생각나는 이유는 이런 비판적 성찰이 부럽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총선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치와 윤리 등,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이 매년 총선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리 사회에 대한 개개인의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땅과의 눈으로 덮힌 사회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봄이 없는 겨울이 지속될 것이고 봄이 없다면 명백히 여름과 가을도 오지 않는다.

社說

'재계 거목'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큰별' 지다

'재계의 거목'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9일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섬유 한국'의 신화를 쓴 독실한 기업가이자 화석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답게 기술에 대한 집념이 남달랐다. 1967년 신촌여행을 이룸도 생소했던 이탈리아 포블리노 선택한 일화는 유명하다. 동양나이론 기술진이 이곳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밤새 직원들과 토론을 벌인 일절은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기술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졌다.

'섬유의 반도체'로 불리는 스판덱스와 '꿈의 신소재'인 탄소섬유는 이런 노력의 결실이었다. 경남 함안 출신이지만 고인의 호남 사랑은 유별났다. 창원에 가용 부지가 있었던 데도 2013년 1조 2000억원을 들여 전

주에 국내 최초 탄소섬유 공장을 설립했고 2022년에는 전남도와 그린수소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고 2031년부터 연간 20만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등 전남을 그린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주춧돌을 놓았다.

고인은 경영뿐 아니라 재계에도 잊지 못할 큰 족적을 남겼다. 5년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앞장섰다.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를 바탕으로 민간 경제외교관 역할에도 나서 한미재계회의의 한국측 위원장을 맡아 대미 수출의 기폭제가 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고 한일경제협력장으로 일본과의 우호 협력과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35년간 효성을 이끌며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고인은 효성(曉星)그룹의 이름처럼 이제 반짝이는 '셋별'이 됐다. 재계의 거목을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기술보국의 기업가 정신과 사회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봉사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광주 도시 브랜드 시민이 직접 기획한다

도시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도시 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 브랜딩은 도시가 지닌 환경, 시설을 비롯해 고유의 철학, 문화 등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해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의 '다시 찾고 싶은 도시들'은 그 도시만의 창의적인 브랜딩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브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홍보를 위한 '광주브랜드학교' 운영이 그것이다. 창의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과 브랜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성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매력을 가장 잘 알고, 그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지역민들이 직접 브랜딩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당신의 기획은 광주가 된다'를 구호로 내건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시민이 직접 광주에서 겪은 경험과 지역 콘텐츠를 도시 브랜드로 디자인하고 도시 홍보물로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해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의 '다시 찾고 싶은 도시들'은 그 도시만의 창의적인 브랜딩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부산 영도와 경북 포항의 도시 브랜딩을 주도한 국민대 디자인학과 교수팀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며 우수 수료생 10명에게는 광주시 시청 홍보행사과 홍보물 기획 참여, 교육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 등도 제공한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도시 브랜드는 어떤 것일까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관이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광주의 도시 경쟁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無等鼓

K-컬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 방탄소년단(BTS)이다. 이들은 한류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월 그래미 어워드 공식 홈페이지에 Ana Monroy Yglesias가 작성한 'BTS 현상' 다섯 가지는 주목할 만하다. 'BTS는 세상을 뛰어넘는다', '우아하게 경계를 가로지른다', '일곱 명의 멤버 모두가 그룹에 독특한 재능을 부여한다', '그들의 음악은 팬들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BTS는 그들의 아미를 가족으로 여긴다' 등이다.

BTS와 인문학

그러나 'BTS 현상'으로 제한하기에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성프란시스대학 작문교수로 있는 박경장 박사가 최근 펴낸 'BTS, 인문학 향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지구촌 아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BTS 아미가 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진 아이가 밝아졌으며, 무기력에 빠졌던 아이가 헤르만 헤세 '데미안'과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을 읽고, 세상 밖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한다. BTS 음악의 근원은 무엇일까. 박경장

교수는 인문학에서 그 답을 찾는데 무비 예 소설을 비롯해 시, 철학, 신화, 역사 등 다양한 학문과 예술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본다. 즉 무비들의 서사와 구조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 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만능의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인문학의 설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AI시대 도래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인간 근원을 탐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성찰하는 방편으로서 인문학이 지닌 가치는 영원불변할 것이라는 의미다.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한다. BTS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롭게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창작의 저수지에 답이 있을 것 같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수필의 향기

어느 중생의 기도



김향남
수필가

키고 있었다. 오호, 소문 따라 찾아오긴 했지만 그 발치 아래 당도한 것만으로도 감개가 무량했다.

그렇긴 해도 호젓한 독대는 꿈도 못 꿀 성싶었다. 이미 문전성시를 이룬 노천법당은 내 처지가 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저마다 간절한 소망 하나 사리려고 불원천리 달려온 것이 아니겠나.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려고 세 시간여를 서둘러 온 참이었으니까. 문제는 좀처럼 빈자리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거기 옆드려야 비로소 내 원(願)도 접수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난간에 기대어 차례를 기다렸다. 나는 별로 신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즈음 하는 일은 비는 것밖에 없었다. 부처님은 물론 하느님에게도 빌고 성모님에게도 빌었다. 나무에게도 빌고 바위에게도 빌었다. 해가 뜨면 해님에게 빌고 달이 뜨면 달님에게 빌었다. 날아가는 새에게도 빌고 매미에게도 빌었다. 제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그건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느냐고, 부디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문득문득 간절해지곤 했다.

이슬비 오는 아침, 장밖에 매미 한 마리가 보였다. 거실 창문에 바짝 붙어 내 거등을 뺐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리쳐 부르는 것도 같았다. 연일 잠을 설친 내 짙은 그저 심란할 뿐이었다. 나는 흠짓 몸을 사렸지만 그보다 반가움이 더 앞섰다. 그는 곧 날아가 버릴 것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발송할 존재도 아니었다. 그약스 러우리만치 기세 좋은 울음은 단지 내 시선을 끌고자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을 터였다. 그것은 다만 나를 위한 것일지도 몰랐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울음에는

광명을 구한 자의 해방감이 가득했으며, 탈각을 완성한 존재로서 신성이 물씬했다.

나는 조심조심 그에게 다가갔다. 얼굴을 가까이 그와 마주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날아갈 기미도 전혀 없었다. 아마도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줄 결심인 듯했다. 아니면 긴히 전할 말이라도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잠자코 그를 응시했다. 그도 역시 나를 보고 있었다.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지만 아무 두려움도 적의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마주 보고 있었다. 그 사이 비가 그치고 언뜻언뜻 푸른 하늘이 보였다. 문득 그가 날아올랐다. 그는 순식간에 내 시야에서 멀어졌다. 나는 펄떡 그의 공무니에 내 시야를 매달았고, 그는 충실한 전령처럼 저 건너로 날아갔다.

이따금 새나 나비가 앉았다 갈 때도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화들짝 반가운 존재였다. 한순간에 희망을 솟구치게 하는 신의 대리자이기도 했다. 그들을 영접하는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올랐다. 그들은 결코 우연히 날아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분명 그들의 소임이 있을 것이었다.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정물처럼 앉아 있었다. 혹시나 내 거등을 저어하지나 않을까, 그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굽어보던지.

이윽고 빈자리가 생겼다. 높이 좌정하신 여래를 향하여 두 손을 모아 깊은 절을 올렸다. 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찌 다 헤아리실는지 알 수 없지만, 부디 제기도는 꼭 들어주시라, 머리를 조아렸다. 아니지. 하늘의 달이 천 개의 강을 다 비추듯 부처님 은덕이 아니 닿는 데가 없을 터. 나는 더욱 깊이 몸을 숙였다.

기후재난 속 맞춤형 물관리 절실

어 수질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물 관리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202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개선으로 좋음(I) 등급을 달성하고 비점오염관리, 저류지천의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유역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따라 K-water에서도 물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모든 댐의 좋음(I) 등급 달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댐별로 호내 유입 오염원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유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로 댐 상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water에서는 주암댐 상류 유역에 공사 최초로 자체 자금 131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올이전은 주암호로 유입되는 하천 중 가장 오염도가 높은 하천으로 고효율 비점저감시설이 들어서면 주암호로 유입되는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평립댐은 다량의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환경부 지원 국고가 투입되어 평립댐 상류의 기존 인공습지를 고효율 비점저감시설로 개선한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으로 농업BMPs 도입 등 오염원 관리의 시너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녹조 대응 역량도 높이고 있다. 사전 대응으로는 수질 모니터링 강화와 오염원 조사·관리를 통해 녹조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수면포

기, 물순환장치 등 대응 설비를 가동하여 녹조 집중 저감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해법도 모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유역 내 녹조 우심 지역인 섬진강댐에 과학적·선제적 녹조대응을 위해 녹조차별을 시범 구축한다. 녹조차별은 우심 지역에 조류차단막으로 녹조를 가둬 집중 증식시킨 후, 수중의 영양물질까지 한 번에 제거하는 것으로 역발상을 통해 녹조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협력하여 자율적으로 물환경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이 댐 상류 유역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호내로 유입되는 부유물이 크게 줄어 실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도 우리 유역의 깨끗한 수질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자부심과 소독도 얻을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향후 댐 상류 인공습지의 관리까지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물 환경이 급변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래에 다가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K-water는 풍부하고 깨끗한 영·섬 유역의 물 관리를 위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질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가 오염원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강화해 가겠다. 항상 그랬듯이 K-water는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완벽하고 빈틈없는 물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불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고



전근일
K-water 영·섬유역 관리처장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홍수, 가뭄, 녹조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물 관리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극한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았다. 2022년 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진 강수량 부족으로 주암댐, 섬진강댐 등 유역 내 모든 댐이 극심한 가뭄 장기화를 겪었다. '가뭄 심각' 단계까지 발령되었고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해야 했다.

가뭄에 이어 2023년 7월에는 총정 이남을 중심으로 최고 10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찾아왔다. 호남지역 강우량은 평년 대비 238%를 기록했다. 장마철 역대 1위 강우량 극값을 갱신한 수치였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를 몸소 체험한 시기였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유역의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슈를 만든다. 그동안 영·섬 유역은 안정적으로 수질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가뭄으로 유량이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오염원의 농도가 높아졌고 집중호우로 다량의 비점오염원이 단기간에 하천으로 유입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